

바닷모래 불법채취 단속 손꼽나

신안군, 단속선 매각 추진 ... 육상 순찰만

매년 수십억원대 모래 외지 선박이 쓸어가

신안군이 공유수면 해상에서의 바다모래 불법채취 단속 업무를 중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신안 지역은 목포를 비롯해 부산과 제주 등 타지역 선박들이 매년 수십억원대의 건축용 바다모래를 불법 채취하고 있다.

이로인해 귀중한 공유재산이 훼손되는 것은 물론 자연생태계 파괴로 인해 대하와 꽃게 등 수산자원이 감소하고 있다.

특히 연안지선에 설치된 김 양식장 인근에서도 불법 채취를 일삼아 양식 어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해수욕장

모래까지 사라지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그러나 신안군은 예산 절감을 이유로 모래채취 단속선 매각을 추진, 지난 5월부터 운항을 중단해 해상 단속이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때문에 야간이나 주말 등을 이용한 불법모래 채취가 더욱 기세를 부리고 있다.

신안군은 지난 한해에만 단속선을 동원해 40회가 넘는 단속활동을 벌여 목포 선적 1천t급 한남 제 701호 등 불법 모래 채취선 3척을 목포해경에

고발했다.

주민들은 바다모래 불법채취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도 군비 4억9천여 만원을 들여 철선으로 건조된지 9년 밖에 되지 않은 단속선을 매각하려는 신안군 행정에 반발하고 있다.

이에대해 신안군 공무원들은 “단속선박 운항 중단에 따라 육상 모래 하역장인 영암 대불부두와 영암 용당부두, 목포 북항선착장 등에 대한 수시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안=조완남기자 wncho@



“은어야·참게야 잘 살라라” 광양시 공무원과 학생, 주민 등 250여명은 지난 28일 옥룡천과 봉강천 등 백운산 4대 계곡에 은어와 참게, 메기치어 등 토산어종 26만여 마리를 방류했다. 광양시는 지난해에도 토산어종을 방류하는 등 백운산 계곡 자연 생태계 복원에 앞장서고 있다. /광양=김춘희기자 chkim@

20년만의 백도 개방 무산 위기

해상국립공원, 자연생태계 파괴 우려 입장 불허

관계 기관이 상반된 입장을 보이면서 20년만의 백도 상륙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거문도 백도 은빛바다축제 관계자는 “문화재 관리청이 하루 50명씩 축

제 기간동안인 31일부터 오는 9월2일 까지 백도 상륙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도해해상국립공원관리공단은 “명승지 제 7호인 백도는 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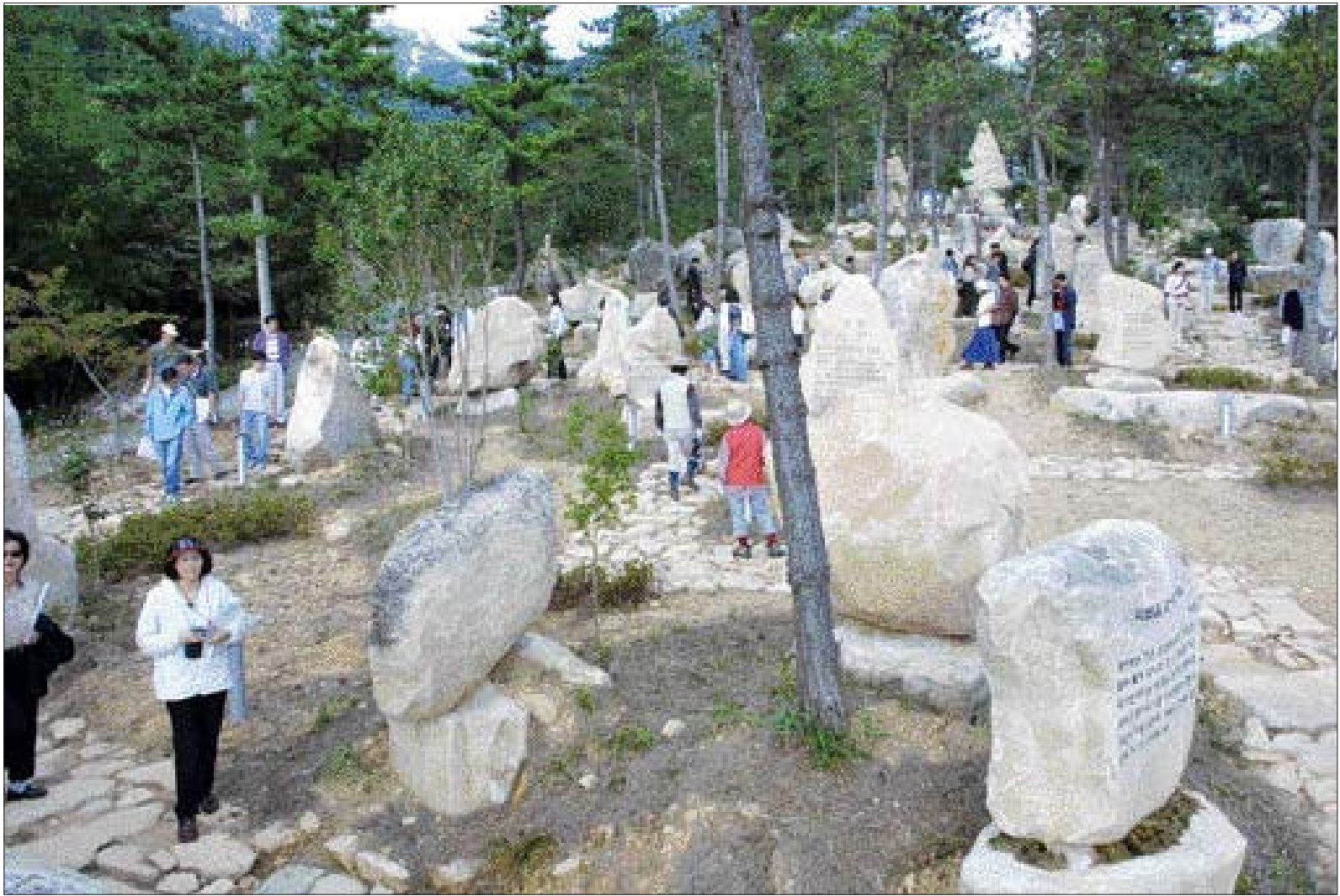
대 보존지역으로 자연생태계 파괴가 우려돼 상륙을 허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백도는 현재 매, 풍난 등 보호조류와 보호식물이 자생하는 등 식생이 복원되고 있는 단계로 당분간 사람의 출입을 금지

하는 등 보호노력이 계속돼야 한다”며 “더욱이 백도는 접근시설이 없어 선박이 접근하기 어려우며 탐방로가 갖춰지지 않아 시민들이 상륙할 경우 위험이 뒤 따르다”고 주장했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관리공단은 축제위원회 측에 생태계 문제와 안전 문제를 들어 입도를 허락할 수 없다는 내용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관광객 몰려드는 천관산 문학테마공원 장흥 천관산 문학테마공원에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천관산 문학공원은 대덕을 연지마를 뒤편 산 기슭에 문탑(文塔)과 문학비 55기가 조성돼 있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

‘짜퉁’ 돌산 갯김치 발 못붙인다

여수시 ‘품질보증 지리 표시제’ 내년 시행

여수시가 ‘짜퉁 돌산 갯 김치’의 유통을 막기 위해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했다. 여수시는 돌산 갯 김치 품질을 보증하는 내용의 ‘돌산 갯 김치 지리 표시제’를 내년부터 시행한다. 지리 표시제는 재료의 생산과 가공지역

을 포장지에 명기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여수시는 돌산 갯 김치를 생산하는 1천여 농가를 중심으로 돌산 갯 생산·유통연합회법을 설립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경기도 등 타 지역에

서 생산된 것을 ‘돌산 갯 김치’로 속여 시중에 유통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진짜 돌산 갯 김치를 구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시는 또 갯 김치 가공업체에 대해 HACCP(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 시설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내장산·백암산국립공원’으로

‘내장산 국립공원’ 명칭변경 추진

장성군과 지역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명칭 변경을 요구해왔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이와 관련, 지난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설문조사를 벌였으며 설문조사에 참여한 8천66명 가운데 91%가 넘는 7천353명이 ‘내장산·백암산 국립공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데 찬성했다. 반대는 713명(8.8%)에 그쳤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환경부에 공원계획 변경을 신청하게 되면 환경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한 뒤 ‘국립공원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명칭을 변경하게 된다. 국립공원위원회는 위원장인 환경부 차관을 포함해 공무원 11명과 민간인 9명이 참여하며, 명칭 변경안이 위원회를 통과할 경우 ‘내장산 국립공원’은 공원지정 36년 만에 ‘내장산·백암산 국립공원’이 된다.

한편 지난 1971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내장산 국립공원은 전체면적 81.715㎢ 가운데 전북 정읍시가 면적의 46.6%, 순창군이 11.6%, 장성군이 41.8%를 차지하고 있다.

/장성=고재빈기자 jbg@

광주·전남 10개대 학생대표 30여명

여수엑스포 홍보위원으로 뽑다

전남도, 광주대생 등 위촉다.

이들 홍보위원에 참여한 대학은 광주지역의 광주대·호남대·송원대, 전남지역의 목포대·순천대·전남대 여수캠퍼스·초당대·대불대·동신대·목포과학대 등 10개 대학이다.

이들은 대학축제 및 주요 행사장과 국내·외 대학 교류 프로그램 등을 통한 엑스포 홍보, 총학생회 및 동아리 등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홍보 활동에 나서게 된다.

이번 대학생 홍보위원 위촉은 지역 대학생들의 자발적인 요청에 의해 이뤄졌다.

이날 위촉식에 참석한 박준영 전남지사는 “2012 세계박람회 유치 결정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가운데 대학생들이 홍보활동을 지원해주기로 한데 대해 고맙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열정과 많은 아이디어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쳐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학생대표들은 여수엑스포 유치를 염원하는 2천12개의 종이학을 만들어 박 지사에게 전달했다.

/홍행기자 redplane@

‘자연이 살아 숨쉬는’ 순천시 조성

시, 2010년까지 나무 300만그루 심어

순천시가 도심 곳곳에 300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다.

순천시는 2010년까지 순천만과 가로변, 공원 등지에 나무 300만 그루를 심기로 하고 오는 10월 첫 나무심기 행사를 연다.

시는 순천만에는 활엽수, 가로변에는 낙엽수, 공원에는 유실수 등 매년 70~80만 그루의 나무를 심기로 했다.

또 학교와 광장서 협조를 얻어 담을 허문 뒤 나무를 심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노관규 시장과 공민·복지 담당 공무원들은 29일 도심공원화 사업 벤치마킹을 위해 대구와 김해시를 방문했다.

3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이 완료되면 자연이 살아 숨쉬는 도시로 탈바꿈하고 여름철 기온 상승 억제 효과도 기대된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박물관은 살아있다’ 인기 폭발

목포자연사박물관 입체영상관 두달만에 2만명 돌파

목포자연사박물관 4D 입체영상관이 관람객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사진)

3차원 입체영상과 바람, 진동, 의자 앞쪽 등의 특수효과를 동시에 만끽할 수 있는 입체영상관은 개관 4개월 만에 관람객 2만 명을 돌파했다.

HD급 고화질 입체 영상과 특수 효과가 실시간으로 처리되는 이 영상관에서 상영되는 영화는 ‘공룡대모험(DINO ADVENTURE)’으로 1억 전 건 백악기 시대 공룡들을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다.

모두 50석인 이 영상관은 평일 8회, 공휴일 10회 운영되고 있다.

입체 영상관은 최근 중국인 수학 여행단 및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어 입체 영상 중국어 번역본을 다음 달 1일부터 상영할 예정이다.

또 관람객에게 품격 높고 새로운 개념의 박물관 관람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4개 국어(한, 영, 중, 일어) 모바일 자동 음성 안내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우리은행·SK건설

세계박람회 후원금 기탁

2012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한 후원금 기탁이 잇따르고 있다.

우리은행은 29일 여수시장실에서 김희열 부행장이 오현섭 시장에게 후원금 1억원을 전달했다.

이에앞서 SK건설(주)도 지난 28일 세계박람회 여수시준비위원회에 1억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또 지난 주에는 (사)한국수산업경영인 여수시연합회가 100만원을 여수시준비위에 전달했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섬지역 운항선 무료수리

‘나룻배러브하우스’ 호응

여수해양경찰서가 실시하고 있는 이른바 ‘나룻배 러브하우스’가 선주와 도시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모 방상사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해 지난 6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이 사업은 여수, 고흥지역 도서와 육지를 오가는 나룻배를 무료로 정비해주는 것.

현재까지 여수시 봉산동과 경도를 운항하는 월호호(25t)와 여수시 율촌면 조화리호(4.99t)의 기관 장비를 교체 또는 수리해줬고, 배 내부 페인트 칠도 해줬다.

비용은 여수시로부터 지원받거나 행정 자체 예산으로 충당했다.

여수해경은 앞으로 나룻배 안에 구명복 등을 비치하는 등 지속적으로 수리와 정비를 해주기로 했다.

현재 여수와 고흥지역에서는 29대의 나룻배가 운항되고 있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